



그림으로 전하는 나의 용기

도산초 6-1 김규빈

난 ‘이응노 미술대회’에서 특선상을 받았다. 그때 손에는 평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 들려있었다. 도화지를 뚫고 나와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 주변에서는 하얀색 비둘기가 날아다닌다. 비둘기와 태극기 아래에는 손 맞잡은 사람들이 이것을 떠받들고 있다. 난 미술대회에 처음 나가보았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처음으로 특선상을 받았다. 그래서 난 이 계기로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평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난 광복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얼마 전 여름방학 때 방문했던 서대문형무소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 우린 어두운 방 안에 있듯 캄캄했다.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였지만, 잔인한 일본군들에게 잡혀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지냈다. 이렇듯 서대문형무소는 독립운동가들의 아픈 과거가 담겨있는 곳이다.

서대문형무소에 가기 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독립운동가들의 고문장 정도였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서대문형무소는 내

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무섭고 슬픈 곳이었다. 폭이 좁고 긴 관, 송곳이 올려져 있는 책상,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얼굴을 마구잡이로 넣는 곳까지, 서대문형무소에 가보니 우리나라의 아픔이 더욱 더 와닿았고 서대문형무소의 수많은 고문 도구들을 보니 등이 오싹할 정도로 두려웠다. 내가 만약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였다면 난 서대문형무소에서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고문장을 지나 또 다른 독방이 있었다. 독방 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아는 위인이라 눈이 번뜩였다. 그 이름은 바로

“유관순”

세 글자였다. 유관순 열사님은 18살에 이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13살인 나보다 고작 5살 더 많았을 뿐, 나와 비슷한 나이임에도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지금 난 무엇을 하고 있나?”

“18살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와 유관순 열사님을 비교해 보니 내가 한없이 어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회를 통해 난 용기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미술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난 무척 두려웠다.

‘잊자! 잊자’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없애려 애썼다.

그래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유관순 열사님도 두려웠을 것이다. 고문이 두렵지 않을 리 없다. 유관순 열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난 그림을 좋아한다.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다. 내가 미술대회에서 그렸던 ‘아이들이 태극기를 그리면서 평화를 꿈꾸는 것’처럼 나도 그림을 그릴 때 용기를 담아서 더 나은 내일을 그림 속에 그려가고 싶다.

